

해 외 출 장 복 명 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일본의 밤 생산, 유통 및 수입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 주요 출장 내용

○ 일본산지의 밤 재배 · 생산 및 유통 동향

-주요 재배 품종 및 생산동향

-유통 및 산지가격 동향

○ 일본의 밤 수입동향

-한국 및 중국산 생밤, 깎밤, 가공밤 수입추세

-깎밤 수입의 경우 한국산과 중국산 물량 및 가격추세

-밤 제품관련 관세 및 비관세 제도

○ 일본의 밤 시장동향

-일본산 밤(생밤, 깎밤 등)의 유통물량 및 가격

-한국산 및 중국산 밤(생밤, 깎밤 등)의 유통물량 및 가격

-밤 유통을 위한 등급화 실태

○ 일본의 밤 소비동향

-밤 소비 및 제품동향

-한국산 밤에 대한 인지도

☐ 출장지 및 기간

○ 출 장 지 : 일본 동경, 이바라키

○ 출장기간 : 2012년 5월 29일(화) ~ 6월 2일(토) (4박 5일)

☐ 출장자: 장철수 연구위원

□ 주요출장 일정 및 내용

일 자	이동상황	방문기관	면담자	연락처	주요 사항
5. 29	서울 → 동경	▪ 동경AT지사 ▪ 동경 백화점 (이세탄, 게이요)	▪ 정현철차장 ▪ 정영남차장	03-5367-6664	• 숙소 도착 • 일정조정, 관련자료 수집 • 밤 제품 동향파악
5. 30	체 재	▪ 이이즈카(주) ▪ 식품슈퍼마켓 (미즈코시, 코레도)	▪ 오오히라과장	03-3256-1851	• 수입 밤 제품별 동향 • 간밤 관련 중국산동향 • 수입산 유통구조 • 밤 제품 동향파악
5.31	동경↔ 이바라키	▪ 중앙농협 ▪ 생산자협회	▪ 요시타카회장 ▪ 나카지마자문 ▪ 이와사키부장	029-222-8511 029-222-8513 029-677-8656	• 재배 및 생산 실태 파악 • 산지유통체계 및 가격 파악
6. 1	체재	▪ 正榮식품(주) ▪ 동경大田시장 ▪ 동경청과(주)	▪ 시미즈과장 ▪ 스즈키과장	03-3253-4161 03-3253-4162	• 밤 수입실태, 관세 및 비 관세장벽 • 한·중·일 밤 유통 및 가격동향 파악 • 유통 등급화 실태 파악
6. 2	동경 → 서울				▪ 김포도착

2. 출장결과

가. 생산

- 2000년도 이후 일본의 밤 생산은 매년 감소추세로서, 2011년도에는 결과수 면적은 21,400ha, 10a당 수량은 89kg, 수확(생산)량은 19,100톤, 출하량은 13,80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도 밤 수확량은 개화기의 일기불순에 의해 결과모지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400톤(19%)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결과수 면적과 10a당 수량은 연평균 1.75%씩 감소하였고 수확량과 출하량 또한 3.5%와 3%씩 매년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생산량 감소는 생산농가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밤나무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택지화로 인한 폐원 증가 그리고 외국산 밤 수입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이바라기현(茨城)은 쿠마모토현(熊本), 에히메현(愛媛) 등과 함께 3대 주산지로 불리며 이들 3개 현은 전체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이바라키가 26% 정도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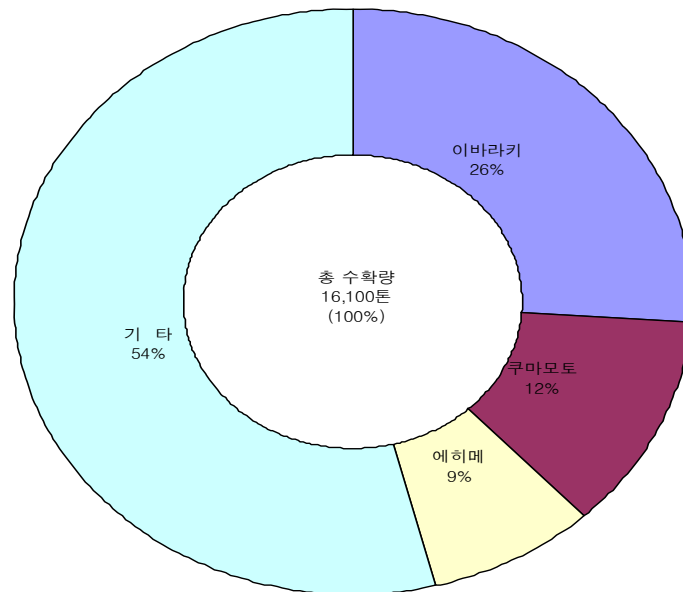
표 1. 일본의 연도별 밤 생산현황

연 도	결과수 면적 (ha)	10a당 수량 (kg)	수확량(t)	출하량(t)
2000	26,400	101	26,700	18,400
2003	25,300	98	24,600	17,500
2005	23,800	92	21,800	14,800
2007	23,000	96	22,100	15,600
2008	22,500	112	25,300	18,300
2009	22,100	98	21,700	15,600
2010	21,700	108	23,500	17,100
2011	21,400	89	19,100	13,800
전년대비 증감율(%)	-1.00	-18.0	-19.0	-19.0
최근 5년간 증감율(%)	-1.75	-1.75	-3.50	-3.00

주: 결과수 면적은 당해 연도 밤 생산을 위해 재배된 면적, 수확량은 수확한 것 가운데 생식용, 가공용으로 유통기준을 만족하는 밤의 중량, 출하량은 수확량에서 생산자의 자가소비(친·인척, 이웃 등에 선물한 경우도 포함), 수확후의 감모 등을 제외한 중량을 의미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통계부 농림수산통계(2012. 4)

그림 1. 주요 산지별 수확량 및 비율



- 주요산지별로 2011년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산을 보이고 있는 이바라기현의 경우 결과수 면적은 3,880ha, 10a당 수량은 128kg, 수확량은 4,970톤, 출하량은 4,030톤으로서 전년도 대비 결과수 면적은 99%, 10a당 수량은 75%, 수확량 및 출하량 또한 75%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쿠마모토현의 경우 수확량 및 출하량이 전년도 대비 71%와 70%수준에 머물러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산지별 생산현황(2011)

구 분	결과수 면적(ha)	10a당 수량(kg)	수확량 (t)	출하량 (t)	전년도 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	출하량 (%)
전 국	21,400	89	19,100	13,800	99	82	81	81
이바라기	3,880	128	4,970	4,030	99	75	75	75
쿠마모토	3,030	78	2,360	2,090	99	72	71	70
에히메	2,290	69	1,580	1,310	99	85	84	84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통계부 농림수산물통계(2012. 4)

- 주요 밤 품종과 특징을 보면 먼저 생산시기에 따라 조생종(8월말~9월 하순), 중생종(9월 하순~10월 상순), 만생종(10월 상순~하순) 등으로 구분되며 조생종에는 森早生(8월말~9월 상순: 소과), 玉造(8월말~9월 상순: 소과), 丹澤(9월 상순~중순: 대과), 出雲(9월 상순~중순: 대과), 人丸(9월 중순~하순: 중과 및 대과), 大峰(9월 중순~하순: 중과), 國見(9월 중순~하순: 대과),
 -중생종에는 築波(9월 하순~10월 상순: 중과), 銀寄(9월 하순~10월 상순: 중과 및 대과), 利平(9월 하순~10월 중순: 대과)
 -만생종에는 石鎚(10월 상순~하순: 대과), 岸根(10월 중순~하순: 대과) 등을 들 수 있음

- 이바라키현의 경우 丹澤, 築波, 銀寄, 石鎚, 岸根, 利平, 人丸, 大峰, 神峰 등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丹澤, 築波, 岸根, 大峰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음. 丹澤은 조생종이며 감로자와 과자용으로, 築波는 중생종이며 삶은 밤 및 내피밤으로, 岸根은 만생종이며 가공용으로, 大峰은 조생종이며 밤 페이스용 등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됨

- 밤 재배농가의 경영비를 보면 10a당 조수입은 51천엔, 경영비용은 20천엔으로 소득은 31천엔정도임. 면적을 1ha로 하여 현재의 환율(100엔당 1,500원)을 적용하면 조수입은 765만원, 경영비용은 300만 원 정도이므로 실제 소득은 465만 원 정도임
 -경영비용중 종묘·묘목대가 10a당 7천엔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노동, 비료, 농업용 기계 등이 각각 2천엔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간은 10a당 38.31시간이 소요되며 전체 노동시간의 51%가 밤 수확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지전정에 5.65시간, 제초·방제에 4.31시간, 출하에 4.29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밤 재배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정지정전은 밤 생산 이전 연도의 11월부터 생산연도 2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병해충 방제가 4월부터 9월 사이, 제초 등 지층관리가 5-6월, 추비가 7-8월, 밤 수확이 8

월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밤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소요되고 생산이전까지는 노동력 소요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조방적 경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표 3. 일본의 밤 경영비분석(2007년)

구 분	단위	전국평균 (10a당)
■ 조수입	천엔	51
■ 경영비	"	20
-고용노임	"	2
-종묘·묘목	"	7
-비 료	"	2
-농 약	"	0
-제재료비	"	0
-광열동력	"	2
-농용자동차	"	2
-농 기 구	"	2
-각종 공과금	"	2
-포장, 운반 등 요금	"	0
-농용건물	"	1
-임 차 료	"	0
-작업위탁료	"	0
■ 소 득	"	31
■ 노동시간	시간	38.31
-정 지 전 정	"	5.65
-제 초 · 방 제	"	4.31
-수 분 · 적 과	"	-
-비 료 산 포	"	0.27
-수 확 · 조 제	"	19.49
-출 하 노 동	"	4.29
-기 타	"	4.30

주: 자료는 평성 19년(2007)이며 평성 20년(2008)부터 조사공표가 없음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2006, 2007년도 품목별경영통계」.

- 밤 재배를 위한 주간거리 및 식재본수를 살펴보면 10a를 기준으로 할 때 관행재배의 경우 1-5년생(유목기)에서는 4.5x4.5m, 48본, 6년생이후-성목기에서는 9.0x9.0m, 24본을 그리고 저수고재배의 경우에는 신규조립지는 4.5x4.5m, 48본, 갱신지, 척박지는 3.6x3.6m, 76본을 식재함
- 성목의 경우 기준 수량은 축파의 경우 10a당 300kg임

그림 2. 이바라키현의 재배지와 자동선별기 장치



나. 유통 및 소비

1) 유통 구조

- 일본의 밤 유통구조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입산의 경우 시판용 및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대형식품메이커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자체 가공용으로 소비하거나 빵, 과자 등 제과용 산업체로 가공용 원료를 납품하는 업무용이 대부분임
 - 시판용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해외산지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OEM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즉 가공된 것은 식품이나 제과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가공용을 수입한 경우 이들 소매상을 거쳐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됨
 - 생밤의 경우 가공업자를 거쳐 제품화된 후 식품, 제과도매상을 경유 소매시장으로 유통됨
- 국내산의 경우 생밤은 생산자협회를 통해 도매시장으로 상장한 후 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유통되거나, 직접 상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산자들이 유통업체와 산지에서 직접 거래함
 - 거래되는 밤의 형태는 생밤, 깎밤, 밤 통조림 등이며, 생밤의 경우 껍질채로 거래되거나 외피를 벗겨낸 내피밤으로 유통, 밤 통조림은

- 대부분 업소용, 그리고 수입밤 제품은 가당한 상품이 대부분임
- 유통 밤의 출하규격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초특대 3L, 특대 2L, 대 L, 중 M, 소 S 등으로 3L은 직경이 39mm, 평균 중량 32g에 해당하며, S는 직경이 26.29mm, 평균 중량 1g 정도임

표 4. 밤 출하 규격

구 분	1과의 직경 mm	1과의 평균중량 g
3L	39.00	32
2L	35.39	27
L	32.35	21
M	29.32	16
S	26.29	1

- 이바라키현의 경우 밤 생산자연락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전체 밤생산자의 약 25%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재배면적은 약 200ha에 달함
- 주요 재배 품종은 조생종은 丹澤, 중생종은 大峰, 築波, 만생종은 石鎚, 岸根 등이며 이들 품종의 대부분이 생밤으로 판매되며 크기가 3L(초특대과)와 2L(특대과)는 저장밤으로 유통하며, 그 외 일부 군밤으로 판매되기도 함
- 2006년 중량식선별기를 도입함에 따라 품종별 출하체계를 확립하고 선별시 품종이 섞이거나 불량과 즉 부패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변질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직접 선별함
- 주요 판매선은 생울의 경우 京浜市場에서는 東一, 築地, 豊島, 般橋 등에서 4개 회사와 거래하며, 지방시장에서는 水戸中央에서 1개 회사, 가공업분야에서는 과자, 酒造業者 등 3개 회사와 거래
- 저장밤에는 초특대 밤과 零櫛 밤으로 구분되는데 초특대 밤의 경우 품종별(丹澤, 築波, 銀寄, 岸根) 3L을 일정기간 냉장 저장한 상품이며, 零櫛 밤은 품종별 2L을 일정기간 냉장 저장한 상품을 의미함
- 초특대 밤은 수도권에서는 東急 store에서 17개 점포, 西武百貨店 등 8개 점포, 관서지역에서는 Sogo고베점, 현내에서는 京成백화점, 세이부백화점 등에서, 그리고 저장 밤은 현내의 (주)黒田靑果 4개 점포, 세이부스토아 10점포, 이온 4점포 등지에서 판매됨

표 5. JA茨城中央의 주요 밤 판매선

구 분	지 역	판매장소	점포수
생 밤	京浜市場	東一, 築地, 豊島, 般橋	4 사
	地方市場	水戸中央	1 사
	加工業者	菓子, 酒造業者	3 사
초특대	首 都 圏	東急 store	17점포
		西武百貨店他	8점포
		築地 야짜마 倶樂部(인터넷판매)	1점포
	關 西 縣 内	Sogo 고베점	1점포
		京成百貨店	1점포
		西武百貨店 쓰꾸마점	1점포
저장 밤	縣 内	(株)黒田青果	4점포
		(株)마루도(笠原店他)	9점포
		세이부 스토아	10점포
		이온	4점포

- 수입 밤의 경우 생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아마구리의 원료로 이용되며, 수입후 전문 유통업자를 경유 대형 수퍼나 밤 전문점으로 납품됨. 한국산은 내피밤(밤의 겉 껍질은 벗기고 내피가 붙어 있는 밤)이 근래 들어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깎밤은 주로 제과원료로 사용되므로 가공업자에게 납품되며, 그 이외에는 진공팩으로 포장되어 소매점에서 판매됨.

2) 가격

- 일본산 밤의 kg당 주요도매시장가격(8~10월 평균가격)을 보면 수확량이 많았던 2008년을 제외하고 415~418엔 정도였으나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19%가 감소한 516엔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일본산 밤 연도별 가격동향 (주요도매시장 8~10월 평균가격)
(단위 : 엔/kg)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격	415	336	418	418	516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밤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밤 생산이 많은 상위 3개현과 한국, 중국 등 수입선에 대한 취급량과 도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일본 국산 밤은 중앙도매시장에서 2007년도에 총 1,772톤이 거래되었고 평균 가격은 kg당 402엔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1,427톤에 평균 가격은 473엔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거래량은 1,841톤, 평균 가격은 407엔인 것으로 나타남
- 동일 기간 동안 산지별로 비교해 보면 취급물량은 이바라키가 많으나 가격은 쿠마모토와 에히메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쿠마모토와 에히메현에서의 밤생산시기가 이바라키보다 1~2주정도 빨리 시장에 출하되므로 이들 현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이바라키현의 밤은 동경도중앙도매시장에서 평균 1,597톤이 매년 거래되었고 kg당 가격은 385엔, 쿠마모토와 에히메산은 109톤과 37톤으로 kg당 가격은 642엔과 663엔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동경도중앙도매시장에서의 주요 일본 산지와 수입산 밤의 취급물량 및 가격의 추이

(단위 : kg, 엔/kg,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평균	
이바라키	1,559,490	88	1,888,195	85	1,284,372	83	1,977,254	89	1,274,004	89	1,596,663	87
	367	91	345	96	453	98	354	94	443	94	385	95
쿠마모토	77,966	4	136,888	6	124,414	8	135,860	6	71,411	5	109,308	6
	824	205	499	139	547	118	654	173	860	182	642	158
에히메	37,860	2	61,893	3	51,197	3	17,247	1	17,965	1	37,232	2
	907	226	541	151	520	113	766	203	882	186	663	163
국산 밤계	1,771,833	100	2,231,236	100	1,551,070	100	2,224,719	100	1,427,218	100	1,841,215	100
	402	100	359	100	462	100	377	100	473	100	407	100
한국	18,939		15,098		17,206		15,193		11,940		15,675	
	673		1,467		1,466		1,410		1,609		1,285	
중국	18,939		7,871		3,912		6,318		4,427		8,293	
	1,378		746		687		750		713		1,026	
취급 합계	1,809,711		2,254,205		1,572,188		2,246,230		1,443,585		1,865,184	
	411		368		474		385		483		416	

주 : 상단-취급물량, 점유율, 하단-가격, 지수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한국과 중국산의 경우 깐밤 및 생밤을 모두 포함한 물량 및 가격을 나타내므로 제품별 가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2007년 한국과 중국산은 각각 19톤이 거래되었고 kg당 평균 가격은 673엔과 1,378엔이었으나 이후 2011년도에는 12톤과 4톤으로 거래물량이 각각 크게 감소하였고 평균 가격은 1,609엔과 713엔으로 한국산은 상승한 반면 중국산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5개년 평균을 보면 한국과 중국산은 16톤과 8톤, 가격은 1,285엔과 1,026엔으로 도매시장에서의 한국산 가격이 중국산 보다 kg당 평균 259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소비

- 일본의 전체 밤 소비(수입산 포함)는 약 50% 이상이 제과용 원료로 소비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 소비자용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걸쳐 전체의 95%가 소비되고 있음
 - 봄과 여름철엔 불과 5% 정도의 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용도로는 찐밤, 군밤, 건조밤, 밤밥, 아마구리(甘栗) 등으로 이용되고 가공품으로는 마롱글라세, 밤 빵, 밤 영양갱 등으로 이용
 - 일본산 밤은 과거와는 달리 9할 이상이 생식용으로 사용되고 인건비 등이 비싸 가공용으로는 1할 이하로 소비되고 있음. 최근에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깐밤으로 가공되어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는데 일본내의 높은 인건비가 주원인임
- 중국산의 경우 생밤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구워 봉투에 넣어 판매되었으나 중국 현지에서 구워 탈각한 후 냉동으로 수입된 후 껍질이 없는 상태로 포장되어 슈퍼, 편의점 등으로 공급되는 등 원료 밤의 수입보다는 완제품위주로 수입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음
- 한국산 깐 밤은 주로 제과용 또는 감로자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슈퍼 공급용 생식용 밤을 제외하고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JAS)상 원재료명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음
 - 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일본 소비자들의

경우 일부 생식용 밤의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산 밤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임

그림 3. 동경내 백화점 및 식품수퍼마켓에 전시된 밤 제품들



다. 수출입

1) 수출입 추이

- 일본의 생밤수입을 보면 2007년 17,397톤에서 2011년 11,690톤으로 연평균 8.3%씩 감소하고 있으며 kg당 수입가격도 417엔에서 385엔으로 연평균 2%씩 감소추세에 있음
-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에서의 수입이 가장 많은데 동기간동안 13,324톤에서 8,154톤으로 연평균 9.8%씩 감소하고 있고 가격 또한 318엔에서 270엔으로 연평균 3.8%씩 감소하고 있음
- 한국산도 4,054톤에서 3,496톤으로 연평균 3.5%씩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고 가격도 744엔에서 650엔으로 3.3%씩 연평균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태리산은 19톤에서 39톤으로 연평균 26.3%씩 증가하였고 가격은 669엔에서 500엔으로 연평균 8.3%씩 감소하였음
- 한국산은 2011년을 기준으로 일본 평균수입가격보다 265엔이 높고 중국과 이태리산에 비해서도 380엔과 150엔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일본의 생밤 수출입 추이

단위: 톤, 엔/kg

품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
수 입	17,397	14,446	13,831	12,625	11,690	-8.3
	417	407	368	364	385	-2.0
중국	13,324	9,479	9,611	9,092	8,154	-9.8
	318	282	241	260	270	-3.8
한국	4,054	4,935	4,168	3,519	3,496	-3.5
	744	647	661	634	650	-3.3
이태리	19	31	52	14	39	26.3
	669	625	457	616	500	-8.3
수 출			1,592	1,747	514	-34.0
			291	328	329	6.5
중국				1,747	446	-
				328	330	-

주: 상단-수량, 하단-가격을 의미함

자료: 농림수산성 국제부국제정 책과. 각년도.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생밤수출이 2009년부터 중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량은 2009년 1,592톤에서 2011년 514톤으로 크게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밤을 제외한 한국/중국산 밤 제품의 일본 수입추이를 보면 간밤의 경우 한국은 2007년 800톤에서 2011년 611톤으로 최근 5년간 연 6%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6,290톤에서 3,640톤으로 연 10.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간밤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원료가 한국산과 일본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의 경우도 일부 중국 선적분(무역결제가 한국이기 때문)이 포함될 수 있음
 - 2011년도 간밤 수입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간밤 중 원료가 한국산은 2,660톤, 일본산 180톤이며 이들을 제외하면 중국산의 경우 단동 지역 700톤, 단동이외지역이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한국/중국산 밤 제품(생밤제외)의 일본 수입 추이

단위: 톤

품 명	수입선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감율(%)
간 밤 (냉장)	한 국	800	750	805	610	611	-6.0
	중 국	6,290	5,940	4,445	4,000	3,640	-10.5
내피밤 (냉장)	한 국	210	220	230	185	158	-6.3
	중 국	850	570	590	590	538	-9.3
감로자	한 국	220	265	140	180	122	-11.3
	중 국	4,390	4,070	4,610	5,020	5,118	4.3
냉동 밤	한 국	20	5	-	-	-	-
	중 국	1,800	700	740	1,100	1,250	-7.8
조정(중복)	중 국	-40					
합 계	한 국	1,250	1,240	1,175	975	891	-7.3
	중 국	13,290	11,280	10,385	10,710	10,546	-5.3
총 합 계		14,540	12,520	11,560	11,690	11,440	-5.3

자료: MK무역(주)

표 8. 한국/중국산 밤 감로자 수입 내역

단위: 톤

수입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 국	10kg초과	180	205	120	180	115
	10kg이하	40	60	20	2	7
중 국	10kg초과	3,750	3,480	3,930	4,260	4,271
	10kg이하	640	590	680	760	847

자료: MK무역(주)

- 내피밤의 경우 즉 외피를 제거하고 내피가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7년 210톤에서 2011년 158톤으로 연평균 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의 경우 850톤에서 538톤으로 연평균 9.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감로자의 경우 한국산이 2007년 220톤에서 2011년 122톤으로 연평균 1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은 4,390톤에서 5,118톤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중량별로 보면 2011년의 경우 한국산은 10kg초과인 물량은 115톤, 10kg이하 물량이 7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산은 10kg초과인 물량은 4,271톤, 10kg이하 물량이 847톤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한국산 감로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산은 중량과 상관없이 모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생밤을 제외한 한국/중국으로부터의 밤 제품수입은 2007년 14,540톤에서 2011년 11,440톤으로 연평균 5.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내의 밤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2) 관세 및 비관세제도

- 일본의 밤 HS코드의 분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생밤, 일시보존처리 밤, 밤 통조림, 마룽그라세 등으로 구분되는데 관세체계는 가공도가 높을 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누적관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원료 밤(생밤 및 깎밤)에 대해서는 TRQ물량을 지정하고 그 물량 내에서 수입은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TRQ물량을 초과한 경우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생밤에 깎 밤, 내피 밤 등을 모두 포함하며 관세율은 9.6%에 불과함
- 밤 통조림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3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마롱글라세 12.6%, 밤 통조림 16.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생산자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표 9. 밤 상품 분류 및 관세

HS코드	품명	실행 관세율(%)	비고
0802.40-000	밤(신선, 건조)	9.6	-탈각하지 아니한 것
0812.90-430	밤(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아황산가스 또는 염수, 기타 보존용액으로 보존처리한것. 그 상태로는 식용에 부적합한 것
2006.00-010	마롱글라세	12.6	
200819193	통조림	16.8	-기밀용기 포장으로 용기포함하여 중량이 10kg이하의 것

-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생밤을 수입할 경우는 식물 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의 병충해유입방지를 위해 입항 후 즉시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해 [수입식물검사신청서]를 식물 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 유해충이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는 훈증 또는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있음
- 판매목적으로 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후생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에 『식품등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며, 밤의 경우 저장약품인 아프라톡신에 오염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잔류농약 중 휘니치온은 0.2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한국산 밤 가공품의 경우 보존료인 EDTA, 이산화이온, 이산화유황

등이 과다 잔류되어 문제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라. 시사점

- 작년 동북관동대지진(3월 11일)의 영향으로 인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농산물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잠정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후쿠시마, 이바라키 현에 일부 농수산물의 출하제한을 지시한 바 있음
-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강해짐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 관서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관동지방과 동북관동지방이외에서 생산되는 밤은 소비자들의 거부반응이 그리 크지 않음
- 이바라키, 사이타마를 제외한 밤 생산지역은 원전사고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이바라키의 경우도 급년에 들어와서는 방사능 피해로 밤 생산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근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밤나무가 일부 피해를 받은 곳도 있어 생산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자연재해나 방사능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본 내에서 밤의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된 밤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면 일본인의 근성 상 소비를 줄이기도 하겠지만 일본 밤이 담당하고 있는 일정 수요는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주로 중국산 밤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천진아마구리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중국산은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산 밤은 생밤보다는 제과용으로 많이 소비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이 직접 한국산 밤을 접할 기회가 적어 인지도가 거의 없기 때문임

- 향후 일본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수입업체나 가공업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국산 밤의 안전성과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는 강점을 활용해 가공 상품과 고유 브랜드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한국 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일본소비자들에 대해 직접 한국산 밤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